

현장시선



양 해 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장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제주를 위해

일진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고민을 함께 했던 사업자 여러분과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 주신 가스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도는 이사철(신구간) 설명절 등으로 사고에 개연성이 높고 특히, 그 어느 때 보다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른 가스시설 비상전력설비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2012년 우리 공사는 '주요사고 집중관리'를 통한 실질적 가스사고 저감의 해'로 정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안전도시 제주를 이루었다. 우리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동절기 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등 이물질은 없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잊지 말고 환기를 해야 안전하며 안전사용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린다.

셋째 다가오는 이사철에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사를 하기 전 가스시설은 반드시 판매점이나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철거해야 하며, 또한 철거한 가스시설 끝은 반드시 막음 조치를 해야 한다.

설치해 드리며, 도시가스는 제주도시가스에 연락하시면 기기를 안전하게 설치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는 그동안 부정방지시스템, 고객맞춤 제안제도 등을 시행해 2012년 준정부기관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제주도를 찾아 오겠는가. 관광산업 발전도 경제발전도 안전해야 가능하다.

지키고 보듬어야 할 문화유산 '돌담'

제주의 밭 돌담이 돌염전·원담·불턱 등과 함께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을 통해 체계적 보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제주의 돌담은 '흑룡만리(黑龍萬里)'로 일컬어져 왔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버금갈 정도로 길다. 학계 샘플조사에 따르면 제주 돌담의 총길이는 3만6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의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 싸운 '삶'의 흔적이다. 경작지의 소유를 구분하고, 우마(牛馬)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경작지를 고르고,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 '힘 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밭담을 쌓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섬이라는 환경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돌담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경관적 가치까지 더해지고 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최근 제주 밭담의 경관가치는 연간 평균 66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돌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234년(고려 고종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판관이었던 김구(金丘)

불법주·정차 근원적 해법 고민할 때

며칠 전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 가던 어린이가 승합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학원차량들이 학교 정문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바람에 빚어진 사고이다.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된다. 제주시 일출도 고마로 주변은 저녁만 되면 주차장으로 둔갑한다. 학부모들의 차량과 통학차량이 뒤엉키며 혼란을 부채질한다.

제주시 연동 삼성화재빌딩 인근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뿐이다.

100m 떨어진 식당가로 이동하는데만 15분이나 소요됐다. 도로 양쪽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캠페인차량 마저 움직일 수 없었다.

6월말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차량은 27만여대에 이른다. 반면 주차장은 24만여면(面)으로 등록자동차의 89.8%에 그친다.

제주시 연동 삼성화재빌딩 인근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뿐이다.

열린마당

황색등 점멸시 절대 안전운전



김 행 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사

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교차로 통행시 모두가 우선이라는 무법정신의 운전은 모두 자제하고 점멸신호의 의미를 되새기며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교차로 통행시 모두가 우선이라는 무법정신의 운전은 모두 자제하고 점멸신호의 의미를 되새기며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ogongin (대호공인중개사) featuring property listings in various distri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yagongin (대야공인중개사)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Myeongseong (명성부동산컨설팅)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ongin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eokjin (덕진공인중개사)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chul (일출부동산컨설팅)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제주오라공인중개사)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ongbu (동부부동산컨설팅)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